

보도설명자료
(19. 12. 17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전통신장·주택용 절전 할인특례 등의 연장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

(세계일보 12.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◇ 전통신장·주택용 절전 및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 연장여부는 어떠한 사항도 결정된 바 없음

◇ 12월 17일 전자신문 < '전통신장·주택 절전' 전기료 특례할인 연장 '가닥'>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1. 기사내용

- ☐ 정부가 금년 일몰 예정인 전통신장 및 주택용 절전가구 할인특례를 연장하고,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☐ 전통신장, 주택용 절전 및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의 연장여부에 대해서 현재 어떠한 사항도 결정된바 없으며, 특례할인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다양한 대안을 검토중
- ☐ 향후 정부와 한전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개편방안을 결정할 예정임

※ 문의: 전력시장과 이옥현 과장/하원석 사무관 (044-203-5173)